

(재)고래문화재단, 문화체육관광부 「모두의 인문학」 운영기관 선정

‘생애주기별 인문학 프로그램 10개 운영... 국비 1억원 확보’

○ (재)고래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「2026 모두의 인문학」 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.

○ 「2026 모두의 인문학」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,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화시설이 협력해 생활권 기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. 전국 공모를 통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종 20개 운영기관이 선정되었으며, 울산에서는 (재)고래문화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.

○ 이번 선정으로 (재)고래문화재단은 총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사업을 추진한다. 사업운영은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.

○ (재)고래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인문학 프로그램 10개를 기획·운영하고, 총 2,000명 이상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. 특히 아동·청소년·중장년·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인문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인문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.

○ (재)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“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·예술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중심의 인문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”라며 “장생포와 울산의 역사·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

들의 삶에 인문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문의 052 · 270 · 9334 (매주 월요일 휴관)
